

원희룡 장관,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이틀 연속 현장 찾아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후 3시 30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, 사고 및 임시제방 현장을 방문하여 축조 상태, 배수 상황과 하천이 범람하여 지하차도로 유입된 경위 등 침수 사고에 대한 재난안전을 재차 확인·점검하고, 빠른 수습과 함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였다.
- 원 장관은 전날인 16일에도 폴란드에서 귀국 직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송 사고 현장을 찾았으며, 이후 다음날 새벽부터 침수 사고 현장을 재차 방문하고 밤새 비상대기하면서 사고 현장을 지켰다.
- 원 장관은 침수사고 현장 복구 작업에 힘쓰고 있는 소방·경찰·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, 신속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.
- 원 장관은 “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참담한 심정이며,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”라고 하면서,
 - “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분들도 계신 만큼 현장 수습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, 정부가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하여 피해자 유가족 분들을 위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 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- 또한, 원 장관은 침수사고에 대해 “재난안전 대응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할 것”이라고 하면서,
 - “대규모 인명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작은 것 하나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만큼 우리 정부의 여러 감찰 수단들을 동원하여 철저한 조사를 해 나갈 것”임을 강조하였다.
 - 아울러, “밝혀진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책하고,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2023. 7. 17.

국토교통부 대변인